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0. 14(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23개 시군과 통합신공항 연계 경북발전전략 찾는다**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 가동, 시군 미래기획담당관 대거 참석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성장동력 발굴, 국비확보 등 공동대응	미래전략 기획단	
② **경북도,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2019년 결산기준 재정분석 최우수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모든 분야 우수한 평가 받아	예산담당관	
③ **경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코로나에도 순항 중** 10.14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추진협의회 개최 5월부터 4개월 간 590개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환경개선 등 호응도 높아	일자리 경제노동과	
④ **경북으로 음악여행, 안방에서 즐기는 '니캉! 내캉! 버스킹'** 경북 3대문화권 랜선음악여행, 2020 문화보부상, 니캉! 내캉! 버스캉! CJ 다이아 TV 편성 확정, 10.15일부터 15주간 매주 목요일 21시 40분 방영	관광정책과	
⑤ **경북도 인재개발원 설계공모에 '지온재(智溫齋)' 선정** 국제설계공모로 진행...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지온재' 1등 당선작 선정 전통 향교 및 서원을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재해석... 2023년 완공 예정	건축디자인과	
⑥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2만명 눈앞!** 9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1만9463명, 전분기 대비 1320명 증가- 올 하반기 제2행정타운내 8개 기관 이전 완료... 기관 이전 지속 추진	신도시조성과	
⑦ **경북농업기술원, 새마을 세계화에 앞장선다** 농업기술원, 새마을세계화재단과 새마을세계화사업 협력 MOU 체결 2016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440여명 영농 기술연수 실시	농업기술원	
⑧ **10월 독도의 달.. 새롭게 주목 받는 '내 나라 내 겨레' 노래비** 울릉도의 새로운 명물로 주목... 독도와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 충만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 성 자	단 장	김 민 석	
			팀 장	구광모	주무관	이동진
		연 락 처	054-880-4496		

경북도, 23개 시군과 통합신공항 연계 경북발전전략 찾는다

-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 가동, 시군 미래기획담당관 대거 참석 -

-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성장동력 발굴, 국비확보 등 공동대응 -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기 위해 23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는 새로운 경제거점이자 미래성장 동력인 신공항 건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 경제, 관광 등 관련분야 전략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 창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의 신공항 현황·비전, 신공항 연계 미래전략(안) 설명, 대구경북연구원의 공항경제권 발표에 이어, 각 시·군의 지역 강점, 여건 등을 반영한 공항 연계 지역발전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신공항 사업 초기부터 공항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찾아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국책사업 발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 구상 중인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을 연결해 강점 등은 부각시키고 소모적인 경쟁은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신공항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도 및 시·군의 미래·기획 관련 담당관 등이 대거 참

석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지역발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은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성장동력 발굴 △국비확보 대응 △대선공약화 등 신공항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아 경북의 역동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 최고의 공항건설과 지역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혁신적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공항 연계 지역발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공항 건설의 파급효과가 지역 전체에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회의후 송부>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 개최계획

1 회의 개요

○ (일시) 2020. 10. 14.(수) 14:00 ~ 16:00

○ (장소) 화백당(401호)

○ (참석) 행정부지사, 미래전략기획단장·통합신공항추진단장(道), 신공항 연계 미래전략(지역발전)담당 부서장(시군)

▪ 道·시군 실무담당 1명 배석

* 회의장내 상시 마스크 착용

○ (내용)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 논의 등

▪ 시군 의견 청취, 토론 등

* 신공항 연계 경북 미래전략(안) 등 공유

2 시간 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1	1′	▸ 국민의례	
14:01 ~ 14:04	3′	▸ 참석자 소개	
14:04 ~ 14:10	6′	▸ 인사 말씀	
14:10 ~ 14:30	20′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설명**	통합신공항추진단
14:30 ~ 14:50	20′	▸ **신공항 연계 경북 미래전략(안) 설명**	미래전략기획단
14:50 ~ 15:10	20′	▸ **공항경제권 설명**	대구경북연구원
15:10 ~ 15:55	45′	▸ **토론 및 시군 의견청취**	
15:55 ~ 16:00	5′	▸ 마무리 말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담당관	서 정 찬	
			팀 장	이원춘	주무관 조찬웅
		연락처	054-880-2164		

경북도,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19년 결산기준 재정분석 최우수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모든 분야 우수한 평가 받아 -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지난해 재정살림살이의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30%(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항목), 재정효율성 분야 50%(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6개 항목), 재정계획성 분야 20%(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 항목)로 구분해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정혁신과 재정건전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회계연도 우수지표 9개, 미흡지표 9개에서 2019회계연도에는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민선 7기의 재정운용이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우수함을 행정안전부의 평가로 인정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인 공기업부채비율에서 동종단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적되었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총수입 값이 크게 향상되어 2018년 미흡에서 지난해

우수지표로 개선되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950억원 정도 증가해 지방세수입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이 도지사의 '변해야 산다' 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경비부터 솔선수범해 절감한 결과 자체경비비율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원(일반운영비 45억원, 여비 25억원, 업무추진비 1억원 등)이 감소하는 등 세출효율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선7기 적극적인 도정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지방채무가 늘어났으며,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북도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는 등 미흡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북도 재정은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세·지방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참고

2020년(FY2019) 재정분석 결과요약

□ 재정분석 결과

분 야		13개 지표		'19실적(FY2019)		'18실적(FY2018)	
계				도평균대비	18년대비	도평균대비	17년대비
건전성 (300점)		▪ 통합재정수지		우수	우수	미흡	미흡
		▪ 관리채무		미흡	우수	미흡	미흡
		▪ 통합유동부채비율		우수	미흡	우수	우수
		▪ 공기업부채		우수	미흡	우수	우수
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 자체수입비율 / 증감률	지방세	미흡/우수	우수/우수	미흡/미흡	미흡/미흡
		▪ 자체수입비율 / 증감률	세외수입	우수/우수	우수/우수	우수/우수	우수/미흡
		▪ 지방세징수율 / 제고율		미흡/우수	미흡/우수	미흡/미흡	미흡/미흡
		▪ 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지방세	우수/미흡	우수/미흡	우수/미흡	미흡/미흡
		▪ 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세외수입	우수/우수	우수/미흡	우수/미흡	미흡/미흡
	세출 효율	▪ 지방보조금비율 / 증감률		우수/우수	우수/미흡	우수/미흡	우수/미흡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우수/우수	우수/미흡	우수/우수	우수/우수
		▪ 자체경비비율/증감률	2019년신설	우수/우수	신규지표	신규지표	신규지표
계획성 (200점)		▪ 중기재정반영비율	2019년신설	미흡	신규지표	신규지표	신규지표
		▪ 세수오차비율		우수			
		▪ 이불용액비율		우수			

※ 도평균대비 실적 18년 : 우수 9 미흡 9 → 19년 : 우수 18 미흡 5로 개선

※ 전년 대비 실적 18년 : 우수 6 미흡 12 → 19년 : 우수 11 미흡 7로 개선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작성자	과 장	박 성 근	
			팀 장	김보영	주무관 장수희
		연락처	054-880-2648		

경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코로나에도 순항 중

- 10.14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추진협의회 개최 -

- 5월부터 4개월 간 590개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환경개선 등 호응도 높아 -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14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중간보고와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간 올해 고용목표 959명 중 60%에 해당하는 5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업의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먼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신규 채용을 유도한 ‘주식회사 이코니’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코니’는 스마트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초박막 강화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불량률 감소와 양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으로 공장가동률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8명을 신규 채용 했다.

업체 간의 협업으로 신산업 시장의 진출을 꾀하는 기업도 있다. 농업용 기기 생산업체인 ‘이화산업사’와 드론제작 업체인 ‘순돌이 드론’은 업체 간 협업으로 자동 농약분사 드론 시제품을 제작해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일자리와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 분야의 신규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기업수요 맞춤형 신규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지난 4월말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경북, 인천, 충북, 전북, 경남)가 선정됐으며, 경북도는 5월부터 고용노동부,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97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 140개사, 고용환경개선 31개사, 직업훈련 428명, 창업지원 23개사, 일자리 창출 959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례없이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차 추진협의회

202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중간 실적 및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0. 14.(수) 15:00

○ 장　　소 : 경북도청 안민관 3층 창신실

○ 참석대상 : 추진협의회 위원 21명

○ 주요내용

- (보고안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 향후 사업추진 일정 보고
- (논의안건)
  -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사업 기획방향

□ 세부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05′	내빈소개	
15:05~15:15	10′	인사말씀	도 경제부지사
15:15~15:30	15′	2020 사업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보고(PPT)	일자리경제노동과장
15:30~15:55	25′	2021 사업추진 방향 논의	도 경제부지사 주재
15:55~16:00	5′	폐회 및 마무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자	과 장	서 태 원	
			팀 장	이종익	주무관	정석대
		연락처	054-880-3195		

경북으로 음악여행, 안방에서 즐기는 '니캉! 내캉! 버스킹'

- 경북 3대문화권 랜선음악여행, 2020 문화보부상, 니캉! 내캉! 버스킹! -

- CJ 다이아 TV 편성 확정, 10.15일부터 15주간 매주 목요일 21시 40분 방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는 물론 여행도 두렵고, 즐길 공연도 없다. 심지어 올해 추석은 최대한 귀향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당부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마저도 잃어버렸다.

여행도, 공연도, 고향도 못간 우울한 상황, 위로받을 일 없을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에게 빼앗긴 여행과 공연을 되돌려주기 위해 경북 3대문화권* 음악여행 방송프로그램 '문화보부상, 니캉! 내캉! 버스킹! ' 을 CJ DIA TV(다이아 티비)채널에 특별 편성하고, 10월 15일부터 15주간 매주 목요일 21시 40분에 방영한다.

*3대문화권 사업이란 경북지역에 산재한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와, 낙동강, 백두대간 같은 생태축을 활용해 경북을 역사와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韓) 문화의 본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니캉! 내캉! 버스킹!' 은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문화보부상' 사업의 올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시대의 제약에서 3대문화권 사업을 더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비대면 랜선 버스킹 공연이다.

버스킹 공연에는 실력 있는 뮤지션과 경상도 출신의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가 만나 경북의 3대문화권 관광지를 여행하며, 버스킹 공연을 하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속 뮤지션들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장과 관광명소를 여행하며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즉흥 공연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경상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민만이 알 수 있는 추억과 감성도 녹여낼 계획이다.

‘니캉! 내캉! 버스킹!’은 3대 문화권의 각 문화 권역별로 3가지 테마(유교, 신라, 가야·생태)의 여정을 담아 각 테마별 5편씩, 총 15편으로 제작·방영을 준비하고 있다.

검증된 버스킹 뮤지션 하림, 밴드 블루카멜앙상블, 국내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뮤지션인 박혜원, 대세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 지역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며, 각각 DIA TV(다이아 티비) 소속 유명 크리에이터와 함께 경북 3대문화권을 여행하며 경북만의 아름다운 매력과 버스킹 공연을 담았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TV속 풍경이지만 경북 3대문화권의 역사와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명 아티스트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힐링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 성 자	과 장	황 석 호	
			팀 장	이진석	주무관 허현진
		연 락 처	054-880-4240		

경북도 인재개발원 설계공모에 '지온재(智溫齋)' 선정

- 국제설계공모로 진행...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지온재' 1등 당선작 선정 -

- 전통 향교 및 서원을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재해석... 2023년 완공 예정 -

경상북도는 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1등 당선작으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 '지온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는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하고 설계공모 홈페이지(www.iacg.kr)를 통해 공고 및 참가등록 등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작품심사를 통해 14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심사대상 작품은 7개국 12개 작품으로 1등 당선작으로 한국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 '지온재'가 선정 되었으며, 2등 작은 호주 엘리베이트의 '러닝 필드', 3등 작은 미국 박성기 스튜디오의 '구름위의 교육원', 4등 작은 미국 에테르쉽의 '체화된 풍경', 5등 작은 한국 DAM종합건축사사무소의 'K 콘셉트'가 선정 되었다.

1등 당선작에는 용역비 16억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2등~5등 작품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보상금이 수여된다.

1등 당선작 지온재(智溫齋)는 '올바른 지혜와 따뜻한 온기를 가져오는 공간'이라는 주재로 전통 향교 및 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재해석했으며, 경북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영남지방의 구(口)자형 패턴을 이용한 부지 공간을 형성하고, 전통한옥의 기둥, 처마 등 부재

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경북도는 11월 중 당선자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해 2023년 하반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도 인재개발원은 2023년까지 도청신도시 업무시설 지구(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4번지)에 부지면적 8만1583㎡, 연면적 1만2010㎡,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인재개발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건축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이 당선 되었으며, 향후 경북도에서는 국제설계공모를 활성화해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이 경북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작성자	과 장	이 석 호	
			팀 장	김종우	주무관	손승현
		연락처	054-880-4219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2만명 눈앞!

- 9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1만9463명, 전분기 대비 1320명 증가-

- 올 하반기 제2행정타운내 8개 기관 이전 완료... 기관 이전 지속 추진 -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반기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이 이어지며 제2행정타운 활성화와 함께 신도시 전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의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9463명으로 전분기 1만8143명 대비 1320명이 증가해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도시내 코오롱 하늘채에 1454명 입주와 경북여성가족플라자(3개 기관 84명) 개관 및 정부경북합동청사(5개 기관 115명) 완공에 따른 입주기관·단체의 이전이 신도시 인구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30명)와 농어촌공사(159명) 등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적극 유도해 신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가 및 편의시설은 음식점 215개, 학원 109개, 카페(디저트) 64개, 이미용 51개, 마트(편의점) 36개 순이며, 대구은행 신도시 지점(10명)이 10월 중 착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예천 축협(20명)이 내년 5월에 준공되면 신도시 주민들의 금융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시설은 학교시설 4개교 3183명, 보육시설 35개교 1583명으

로 총 39개교 4766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은 1191명 정원에 988명, 유치원은 648명의 정원에 595명으로 각각 203명과 53명의 아동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코오롱 하늘채 어린이집(정원 45명)이 올해 10월에, 예담 유치원(6개 학급, 128명)이 내년 3월에 개원예정으로 맞벌이가 많은 신도시 내 젊은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는 96.4%의 분양률과 94.5%의 입주율을 보였으며, 오피스텔은 85.1%의 분양률과 90.8%의 입주율로 조사됐다. 내년 12월 5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80%가 넘는 젊은 세대의 주택 부담도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3월부터 공사 중인 경북 바이오2차 산업단지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호민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되면 신도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호 신도시조성과장은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신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 성 자	과 장	김 종 수	
			담 당	고진용	담당자 최진국
		연 락 처	053-320-0286		

경북농업기술원, 새마을 세계화에 앞장선다

- 농업기술원, 새마을세계화재단과 새마을세계화사업 협력 MOU 체결 -
- 2016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440여명 영농 기술연수 실시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4일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과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교류, 연구, 교육연수, 자료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2년 11월 설립 이후 국내외 공공 및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며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재단은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9개국 35개 마을에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코트디부아르, 토고에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최근 4년간 세계 각지에서 443명이 방문해 경북농업과 발전상을 배우고 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농업·농촌 기술혁신,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작물 재배기술 등 선진농업기술을 전수해왔다.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과 연계한 영농기술 연수에 대한 수요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희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의 선진농업기술이 재단의 새마을시범마을에 전수되어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라며 양 기관이 더욱 더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이 보유한 선진영농 기술을 접목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새마을세계화재단 간

『새마을 세계화 사업 협력』 협약체결 계획

□ 목 적

○ 새마을 세계화 사업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수행

○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교류, 연구 및 자료 공유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0. 14.　11:00～13:30

○ 장　　소 : 새마을세계화재단 글로벌관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농업기술원장,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관)

- 기　술　원(6명) : 원장, 연구개발국장, 농촌지원국장, 작물연구과장 등
- 새마을세계화재단(5명) : 대표이사, 사무처장, 부장 3명

〈 농기원 선진영농기술 연수 현황 〉

▶ 최근 4년간 해외농업인 및 전문가 연수내역

- 2016년 : 14개국 141명(아프리카 42, 아시아 99명)
- 2017년 : 12개국 104명(아프리카 39, 아시아 55명, 중남미 10명)
- 2018년 : 8개국 101명(아시아 91명, 중남미 10명)
- 2019년 : 3개국 97명(아프리카 97명)

▶ 연수내용 : 경북농업 소개 및 발전상, 맞춤형 주요작물 재배기술 교육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4(수)】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작 성 자	실 장	김 승 하	
			팀 장	권철원	주무관 도한욱
		연 락 처	054-880-7528		

10월 독도의 달.. 새롭게 주목 받는 '내 나라 내 겨레' 노래비

- 울릉도의 새로운 명물로 주목... 독도와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 충만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안용복기념관 초입에는 '아침이슬', '상록수'의 원작자로 유명한 가수 겸 연출가 김민기씨의 또 다른 역작인 '내 나라 내 겨레' 노랫말을 새긴 노래비가 당당하게 서 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시작하는 '내 나라 내 겨레'는 1970년에 지어 1971년에 발매된 곡(작사 김민기, 작곡 송창식)으로,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삼아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노래한 곡이며, 아직도 중장년층에게 피 끓는 감성과 뜨거운 조국애(祖國愛)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내 나라 내 겨레' 노래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노래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동해를 소재로 한 인문자원을 발굴·활용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해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울릉도에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동해의 가치와 나라의 희망을 되새긴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안용복 기념관은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켰던 조선 숙종 때의 인물 안용복을 기념하는 공간이자, 울릉도에서도 독도와 일출이 잘 보이는 장소로 노래비가 가진 상징성과도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노래비의 원작자인 김민

기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내년부터는 독도·동해·대한민국을 노래한 ‘대한찬가(大韓讚歌)’ 음악회를 여는 등 각종 주민참여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주권을 지키는 일은 외교·국방 이외에 생태·환경·과학·인문·문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숨어 있는 해양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 15일(목) 오후 2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열리는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유공자에게 시상한다.